

# 광양 알루미늄 공장 건립 '산넘어 산'

### 광양경제청·주민 대표 합의 불구 순천 일부 마을 "원천무효" 반대 세풍발전협의회 "광양 발전 큰 틀서 해결 실마리 찾았는데...유감"

주민 합의를 이룬 듯 했던 광양시 세풍산단의 알루미늄공장 건립 사업이 또 다시 난관에 봉착했다.

주민 연합체인 세풍발전협의회는 광양환경경제자유구역청 등과 공장 입지에 합의했으나 순천과 세풍지역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세풍발전협의회는 지난 21일 성명에서 "광양 발전이라는 큰 틀 속에서 피해를 감수키로 한 세풍 주민의 양보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며 "최근 순천 해동면 주민들과 광양알루미늄 용해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다시 공장 입주 반대를 시작해 참담한 심정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대위는 광양알루미늄 세풍산단 입주 관련 협약을 끌어낸 주역이었다"며 "일부 비대위 위원들이 협약 체결을 밀약으로 매도하고 합의 사실 인지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이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어 "비대위와 허위, 왜곡된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흔들림 없이 가고자 한다"며 "광양알루미늄 건립 뒤 세풍산단 입주 희망 기업에도 환경문제는 물론 지역경제적 효과, 지역 상생 모델 창출 등 합리적 검토를 거쳐 결정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세풍발전협의회는 7개 마을 이장단과 부녀회, 연합청년회, 세풍연합청년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중국 밉타이 그룹은 광양시 세풍산단 8만2000여㎡ 부지에 1000억원을 투입해 알루미늄 공장을 짓기로 하고 지난해 12월 건축허가를 받았다.

알루미늄 판재와 포일(foil)을 생산하고 남은 조각과 알루미늄 '괴'를 녹여서 알루미늄 덩어리인 슬라브를 만들 계획이었으나 주민들은 대기오염을 이유로 반대했다.

광양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5일 광양시와 광양 알루미늄, 세풍 주민대표와 함께 공장 건립에 합의했다.



알루미늄 공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광양 세풍산단.

하지만 합의 뒤 순천 해동면 신성·산두 마을 비상대책위가 '졸속으로 합의한 광양 알루미늄 공장 4차간 합의는 원천 무효'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세풍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용해로 설치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도 최근 합의사항이 훼손됐다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광양

세풍지역 대다수 주민이 공장 건립에 동의하고 지역 주민으로 환경감시단을 구성, 운영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순천 신성마을에 대기오염 측정소를 설치하는 등 환경 걱정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 진도군, 기초지자체 인스타그램 부문 최우수상

### '제5회 올해의 SNS 시상식'

진도군이 '제5회 2019 올해의 SNS 시상식'에서 기초 지자체 인스타그램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소셜콘텐츠진흥회는 최근 정량평가,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수상 기관을 선정했다.

진도군은 수시로 군정 소식과 먹거리·볼거리·즐길 거리·체협 거리 등 관광 소식과 특산품 등을 SNS로 발 빠르게 전달해 SNS 매체로서 영향력과 파급력을 인정받았다.

올해 다문화가정 6명 등 총 37명의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된 진도군 SNS 서포터즈 기자단이 만들어낸 보배섬 진도군의 숨은 매력과 소식들은 누리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동영상, 카드뉴스, 이벤트 등 다양한 형



태의 콘텐츠와 함께 팬투어를 지속해서 실시하는 등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

오귀석 진도군 홍보담당은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진도군 공식 SNS에 '좋아요'와 '친구 추가'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시대 흐름에 맞는 다양한 SNS 채널을 활용해 진도의 숨은 매력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 보성군 역점시책 "우리동네 우리가 가꾼다"

### '보성 600사업' 선포식...마을 환경개선·공동체 부활 등 추진

'우리동네 우리가 가꾸는 보성 600사업' 선포식이 지난 19일 보성 다비치콘도에서 김철우 군수를 비롯한 읍·면민회장, 이동장, 읍면장, 부서장 등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사진>

2020년 보성군 역점시책이자 자체사업인 우리동네 우리가 가꾸는 보성 600사업은 주민 주도형 소규모 마을 뉴딜사업으로 군비 1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12개 읍·면 600개 자연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간

다는 목표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마을 환경 개선, 생활 여건 개선, 마을공동체 부활 등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지난 9월부터 마을별 특색 있는 사업을 신청받았으며 300개 마을을 선정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선다.

군은 사업추진에 대한 성과발표회를 가져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마을이 자생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육성에도 아낌없는 지원을 할 계획이



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보성600사업은 경관 개선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 기업까지 확장되며 소득 있는 마을을 만들고, 마을

자생력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다"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

## 순창군, 청년 농업인 실습농장 확대 운영

순창군이 올해 분양한 청년 농업인의 실습농장을 내년부터는 확대 운영한다.

군이 올해 시범사업으로 순창군 구림면 위치한 소득개발시험포에 블루베리 실습농장 1곳(면적 1000㎡)을 청년 귀농인인 송영수씨 부부에게 분양했는데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군은 내년부터는 2곳으로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송씨 부부는 순창군 귀농·귀촌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 올해 실습농장을 운영하게 됐으며, 직접 블루베리를 수확해보고 유통, 가공까지 농가경영의 직접적인 체험을 해보는 소중한 경험을 가졌다.

이들은 분양받은 농장으로 블루베리 400kg을 수확, 직접 판매해 600만원의 수

익을 올렸다.

주목할 점은 이번 실습농장은 단순히 밭만을 빌려주고 분양인이 직접 토양을 갈고 작물을 심고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블루베리가 심어져 있는 농장을 분양받아 수확과 판매에 주력했다는 점이다.

군은 작물을 심고 재배하는 과정이 중요하지만, 농산물의 유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송씨는 "재배보다는 수확과 유통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었다"면서 "소비자의 생각이 생산자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고, 어떻게 하면 유통을 잘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게 됐다"고 전했다.

/순창=정양근 기자 jyg@

## 익산시,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 주력

익산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에 주력한다.

익산시에 따르면 무상보육 확대 시행에 맞춰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아동의 부모가 부담하는 차액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희망 어린이집에 한해 1곳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정수기 등 비품을 지원한다.

또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급·간식비 4억6000여만원의 예산을 활용한다.

이와 함께 지역에 거주 중인 1년 이상 장기근속 보육교직원에게 월 2-3만원의 장려수당, 5만원의 명절수당을 지급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편다.

이 밖에도 보조교사와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 예산 지원을 강화한다.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종사자 처우개선비도 지급한다.

시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통학차량 247대에 '잠자는 아이벨'을 설치했으며 163곳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과 함께 부모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보육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익산=유영정 기자 yjy@

## 해남군, 다목적 어업지도선 '뫼곶 희망호' 취항

### 35t급 첫 알루미늄 선박

해남군 다목적 어업지도선 '뫼곶 희망호'가 취항했다. <사진>

35t의 알루미늄 선박인 희망호는 최대 33노트(시속 62km)의 속력을 낼 수 있는 워터젯 추진 장치를 장착, 수심 1m에서 운항할 수 있다.

전남 지역 운항 19척의 어업지도선 중 처음으로 알루미늄 재질의 선박으로 건조

됐다.

알루미늄 재질 선박은 선체가 가볍고 선박의 복원력이 좋아 고속 운항과 회전성이 우수하고 해수에도 강한 내식성을 가지고 있다.

속도도 빨라져 북일면 내동항에서 화원면 별암항까지 약 105km를 2시간 이내에 운항이 가능해 업무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 2020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정시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학과	15
	한국어교육학과	2
사범	유아교육과	3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코칭평생교육상담학 전공)	3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5
	총계	28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19. 12. 26(목) ~ 31(화)  
 전형일: 2020. 1. 7(화)

사랑과 감사의 65년 1954~2019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열정, 품, 진리, 호수만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소로 36

# 2020학년도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60
		신학과(Ph.D.)	7
일반대학원	박사	목회학과(D.Min.)	2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8
		상담심리치료학과(D.C.S.)	8
		코칭심리학과(D.Psy.)	8
		통합예술통계학과(D.C.S.)	5
		통합예술통계학과(D.C.S.)	10
		신학과(Th.M.)	20
		유아교육학과(M.Ed.)	8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코칭심리학과(M.Psy.)	1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20
		평생교육학과(M.Ed.)	1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20
		음악학과(M.A.)	6
음악대학원	석사	실용음악학과(M.A.)	6

■ 전형일정 · 원서접수 [특별전형] 신학대학원 2019. 11. 19(화) ~ 11. 27(수)  
 [일반전형]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심리치료학과,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2019. 12. 2(월) ~ 12. 11(수)